



손흥민

종아리 부상 손흥민, 주말 첼시전 복귀 가능성

산투 감독 “상태 좋지는 않아”

산체스 복귀 시점 19일 예상

토트넘, 데뷔 6주년 축하 메시지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잠시 전열에서 빠진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한국시간 20일 새벽 예정된 첼시전부터 그라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영국 런던 지역지 풋볼런던은 14일(한국시간) 토트넘의 부상자 상황을 전하면서 담당 기자와 팬들의 문답을 공개했다.

풋볼런던은 “토트넘은 기본 좋게 이번 시즌을 출발했지만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패배(0-3패)하면서 망치고 말았다”며 “에릭 다이어는 크리스털 팰리스전 전반 12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돼 A매치 기간에 다친 손흥민, 스티브 베르흐바인, 라이언 세세농에 이어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잉글랜드 U-21 대표팀 소집 기간

에다친 올리버 스킵은 회복됐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브라질 원정에 나섰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조바니 로셀소, 다비손 산체스는 복귀에 앞서 크로아티아에서 10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새벽 1시 45분 프랑스 렌의 로아중 파르크에서 예정된 렌과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앞두고 당장 손흥민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선수가 출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 전력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9월 A매치에 소집된 손흥민은 2일 이라크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7일 레바논전을 앞두고 오른쪽 종아리 근육 염좌로 출전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8일 소속팀으로 돌아갔고, 토트넘을 지휘하는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좋지는 않다(not so

well)”고 밝혔다.

결국 손흥민은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결장했고, 토트넘은 후반 13분 자렛 당강가의 퇴장 약재까지 겹치며 0-3으로 무릎을 꿇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이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핵심 전력인 손흥민의 복귀 일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손흥민의 부상 상태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부상 상태를 전하는 ‘프리미어인저리닷컴’은 손흥민에 대해 ‘종아리 염좌(calf strain)’라고 전하면서 복귀 예정 시점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반면 발목을 다친 베르흐바인의 복귀 예정일은 현지시간 19일로 명시했다. 더불어 자가격리 수칙 때문에 전열에서 빠진 로메로, 로셀소, 산체스의 복귀 시점도 19일로 내다보면서 첼시전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상 발견 이후 충분한 휴식기를 보낸 만큼 17일 렌과 UEFA 콘퍼런스

리그 원정보다는 20일 첼시전에 맞춰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풋볼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도 손흥민과 다이어의 복귀 시점을 묻는 말에 “손흥민과 다이어는 첼시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이어는 애초 예상보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둘 다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트넘은 이날 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토트넘 데뷔전 6주년을 기념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28일 토트넘에 입단했고, 마침내 그해 9월 13일 선덜랜드를 상대로 데뷔전을 펼쳤다.

당시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후반 16분 교체됐고, 팀은 1-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트위터 계정에 ‘6년 전 오늘 손흥민이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다’라는 글과 함께 지난 6년 동안 손흥민이 펼친 활약상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머리 잘 쓴 골 에버턴의 마이클 킨(가운데)이 1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EPL 홈경기에서 후반 15분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넣고 있다. 에버턴이 번리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대사대부고·조선대 동메달 확보

전국체전 배드민턴 단체전

오늘 ‘결승티켓’ 놓고 격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The 102nd National Sports Festival

전대사대부고와조선대가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배드민턴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대사대부고는

14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단체전 8강에서 전북선발에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 4강에 안착했다.

전대사대부고는 1경기 단식에서 조승현이전북 진성익을 2-0(25-23 21-17)으로 꺾어 기본 좋게 출발한 뒤 2경기 단식에서 안윤성이 2-1(21-18 10-21 21-15)로 이겨 기선을 제압했다. 3경기 복식에서는 노진성-곽희창이 2-1(21-15 18-21 21-18)로 승리하며 동

메달을 확정 지었다.

전대사대부고는 15일 오전 10시 충남선발과 결승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여대부에서는 조선대가 동메달을 확보했다.

조선대는 단체전 8강에서 경북선발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조선대는 1경기 단식에서 유서연이 경북 김빛나를 상대로 2-1(11-21 21-14 21-16), 안혜원이 성지영을 2-1(22-20 8-21 21-19)로 이겼고, 3경기 복식에서 유서연-정은영이 호흡을 맞춰 이지는-최하람을 2-0(21-16 21-15)으로 제압해 완승을 거뒀다.

조선대는 15일 오후 1시 한국체대와 4강전을 치른다.

오월한 광주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전대사대부고와 조선대 모두 8강까지만 예상했는데 동메달을 확보했다”며 “시합을 앞두고 오더를 잘 짰고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우리금융, 광주시청 전용태 공식 후원

향저우AG·파리올림픽까지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 최초로 근대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를 공식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바인기 종목 지원 차원에서 전용태가 2022년 향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전용태 선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근대5종 불모지에서 올림픽 메달이라는 패기를 이뤄 국민에 희망과 자랑스러움을 선사했다”며 “전 선수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훈련 지원 및 격려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진행된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 후원 협약식'에서 전용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LB 양현종 홈런 2개 맞고 2⅓이닝 2실점

13경기 평균자책점 5.60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빅리그 등판 기회를 얻었지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양현종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 경기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볼펜 투수로 등판해 2⅓이닝 4피안타(2피홈런)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휴스턴에 1-11로 끌려가는 6회초 2사 만루에 교체 투입된 양현종은 첫 상대 호세 시리에게 추구를 던진 뒤 2구째 체인지업에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맞았다.

이어 다음 타자 게릿 스티프스를 추구에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끝냈다.

7회초에도 등판한 양현종은 삼진 2개를 잡

으며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요르단 알바레스에게 좌중월 솔로포를 맞았다.

다음 타자 윌리 구리엘에게도 안타를 허용했지만, 알레드미스 디아스를 뜬공으로 잡으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양현종은 8회초에도 카를로스 코레아를 땅볼로, 제이키 메예르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시리에게 좌중월 솔로포를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스티프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으며 8회초를 마무리한 양현종은 9회 찰리 켈버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양현종의 올해 메이저리그 13경기 평균자책점은 5.45에서 5.60으로 올랐다.

텍사스는 이날 1-15로 패했다.

양현종에게서 2안타 3타점을 뽑아낸 시리는 이날 5타수 4안타 5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광주화정초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

결승 충북 석교초에 2-4 석패

올해 광주 유일 전국대회 입상

광주화정초가 제51회 대한야구소프트볼회장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화정초는 14일 황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제1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2-4로 아쉽게 지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정초는 1회말 선제득점을 내졌으나 2회초 복현우의 홈런으로 1-1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3회말 3실점, 1-4로 리드를 내줬다. 화정초는 4회 초 이준영의 홈런으로 1점을 따라붙는데 그쳤다.

이번 대회는 올해 두 번째 전국대회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고, 11일 동안 전국 총 93개 초등학교 및 U-12 클럽팀이 열전을 펼쳤다.



광주화정초가 14일 황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제1구장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초등부 결승에서 석교초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화정초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야구부 중 유일하게 올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며 야구 메카 광주의 명예를 높였다.

광주화정초 야구부 유종열 감독은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부 주장 김정민을 비롯한 참가 선수 모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장경희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화정초 장경희 교장은 “오랜 기간 타지에서 지내면서 준우승 성과를 이뤄낸 선수들, 그리고 유종열 감독과 코치,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고진영 포틀랜드 클래식 출격

고진영(26)이 2개월의 공백을 깨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나선다.

고진영은 오는 1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의 디 오리건 골프 클럽(파72·6,478야드)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40만 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은 지난 7월 22-26일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공동 60위)을 끝으로

LPGA 투어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8월 초 2020 도쿄올림픽(8월 4-7일)에서 공동 9위를 거둔 후 휴식기를 보낸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L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

그는 7월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 우승을 이은 시즌 2승, 통산 9승에 도전한다.

1972년 창설된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은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메이저대회를 제외하고 LPGA 투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대회다. /연합뉴스

지난해에는 미국 서부 대형 산불 여파로 3라운드 대회로 축소 운영된 가운데 조지아 홀(잉글랜드)이 우승을 차지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이정은(25)도 약 한 달 만에 대회에 출전한다. 이정은은 지난달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에서 공동 48위를 거둔 후 쉬었다.

박성현(28)도 출전한다. 올해 15개 대회 중 10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는 등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성현은 부활을 노린다. /연합뉴스